나라는 것도 공해서 고정됨이 없으니 세울게 없다

☞ 21면에서 계속

자기가 지혜로운 마음으로써 그것을 한 개의 지혜로운 무기로 삼아서 해 나갈 수 있는 그 조절.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색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바로 무루인의 내놔도 내놓을 게 없는 나 자체, 또 내놓을 게 있는 색으로 봐도 그 색조차 공해 버렸으니 뭐가 있을 것인가. 색조차 공해 버렸다고 그러는 거는 아주 삶의 근본적인 바탕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변질돼 가고 늙고 병들고 이러는데, 늙어 가는 것도 과정이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발 하나하나 떼어 놓는데 말입니다, 오늘로, 하루살이로만 살아 보세요. 하루살이로만 산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앞도 뒤도 끊어진 자리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것도 공해서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나라는 것도 세울 게 없는데 어찌 거기 붙을 게 있겠습니까? 뭐가 붙습니까, 거기?

그래서 이 말도 했던 말이 항상 반복되지만 새삼스럽게 요것이 하나가 거기 지금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 생활을 하는 데도 내가 마음의 한생각과 또는 행과, 음식을 먹는 데도 또 마음을 쓰는 데도 항상 조절의 활용을 제대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할 수만 있다면 나쁜 거는 소탕하고…, 이 안에서도 말입니다. 나쁜 건 왜 소탕이 되느냐? 내 안에서 작업을 하면서 이 원자력에서 모든 나쁜 거는 태워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서 그 원자가 태워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썩은 물이나 나쁜 물이나 좋은 물이나, 좋은 건 좋은 것대로 받아들이면서 굴리고 또는 체내에나 이 세포에 모든 것이 공급이 되게끔 되지마는 만약에 나쁜 물질이 잘못 공급이 되면, 사람이 나쁘게 될 땐 그거는 태워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한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체험하고 돌아가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내가 이날까지 약을 지어다 먹으면서 누워서 앓아 본 예가 없습니다. 아, 쪼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즐겁고, 또 비켜나면 참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항상 입을 딱 다물고선…, 내가 내 몸 하나로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서 수만 개가 돼서 돌아가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집착을 할 사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붙습니까, 거기?

그래서 우리는 말만이 아니라 실천을 자꾸자꾸 해야 하고, 여러분은 지금 내가 이렇게 설법을 하는 것이 요다음에는 또 그것도 늦다고 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앞으로 점점 자라나는 사람들은 점점 새 기분으로써 새 세대로서, 또 시대가 바뀌짐으로써 점점 연구를 해서 더 우리가 연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본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야, 사람들이 백 명이 할 일을 지금은 열 명이 앉아서 다 해낸다 이랬을 때 "아유, 그때는 참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이러거든요. 여러분이 옛날에 버선 깁고 그걸 잿물에다 빨아서 다듬고 또 그냥 날른날른하게 명주를 다듬어서 바지저고리를 해 입히면 나가서 그저 하루도 못 입고 그냥 술 먹고는 흙탕에다 튀여 가지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날로 벗겨서 또 빨아야 돼. 이게 손이 얼마가 돌아갑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땠나. '그때 어떻게 살았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빠르다고 해도, 그것은 변치 않고 돌아갈 겁니다마는 혹시나 말 자체가 더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모든 살아나가는 게, 우리가 한생각으로 뛰는 게 나으냐. 빛이 더 빠르냐, 내 한생각이 더 빠르냐 이런다면 빛보다 어떤 게 더 빠르겠습니까? 빛으로 하는 것은, 그것도 인간이 참, 수없이 연구를 해야만이 그것도 빛으로 갈 수 있고 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이건 천연적으로 빛과 모든 게 구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만날 얘기해 드리죠. 그래도 그게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지금 오관을 통해서 하고 원자력과 통신기와 천안기와 천이기 또는 우리의 타심기 또는 숙명기, 이 모두가 종합해서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이 아닌, 모습도 없는 어떠한 데 저런 것이 전부 나 아님이 없기 때문에, 그 구름도 나 아님이 없기 때문에 구름 따라서 흘러서 그냥 한생각에 그저 왔다 갔다,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것이 얼마나 빠릅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만약에 육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미국을 본다 하고 저 은하계를 본다 할 때, 그럼 여러분이 아시는 집을 생각하고 보는 그것하고 은하계를 보는 그 생각하고 차이점이 납니까, 안 납니까? 가깝고 멀고 차이점이 안 나죠. 요기 요 바깥의 요거 한번 생각하는 거하고 저 은하계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안 납니다. 이렇게 빠른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도 초월되고 또는 무중력 상태에서 어디까지나 멀고 가까움이 없이, 가고 옴이 없이, 이게 말을 하려니까 "가고 옴이 없이" 이런 말을 하고 또 말을 하려니까 모든 게 이런 말이 붙습니다마는 가고 옴이 없다는 그 말조차도 붙지 않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마음의 눈으로 보신다고 생각하고, 집에서 항상 사셨으니까 집은 잘 보시겠죠, 여기 앉아서. 한번 봐 보세요. 시간이 걸리나 안 걸리나. 몽땅 보세요! 집을 한번 보세요. 그냥 이렇게 한번 보실 때에 어디가 대문이고 어디가 뭐고 어디가 뭐고 이런 거를 막론하고 아예 그냥 몽땅 봐 보세요. 그럼 이 생각으로, 머리로, 벌써 그거는 뜻으로 이게 어디가 뭐가 있고 어디가 뭐가 있다는 게 종합해서 나오죠. 어떻습니까? 이래도 못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데에**
> **할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걸 떠나라.**
> **떠나서 환경에 닥치는 대로 조절하고**
> **또 자기의 분수에 맞게 생활하라.**

그래서 그렇게 보건마는 보는 것만이 도가 아니라고 했으니 엄청난 말입니다, 이게. 보기만 하면 뭘 합니까? 여기 지구 안에 공기가 없어서 다 죽게 생겼는데, 사람에게 보급되는 공기나 또는 어떠한 에너지를 가져와야만 우리 여기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들이 다 산다고 할 때 이것을 보기만 하고 가져올 수 없다면 그 본 것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듣고, 또는 가고 오고, 함이 없이 가고 오고 또는 내 몸을, 모습을 수만 개로 바꾸고 한다, 또는 남의 속을 뚫어지게 본다, 남이 이날까지 살아온 거를 뚫어지게 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목마른데 마실 수 없다면 소용도 없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 마실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것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용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하죠.

십대 제자가 손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뜻으로도 돼 있고 한생각에 내가 그 집을 몽땅 보듯이, 몽땅 보기 때문에 그것은 보는 게 아니라 순간 생각할 때 벌써 집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게 그냥 뜻으로다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항상 사시면서도, 여러분의 집에 뭐가 있고 뭐가 있는 거 다 알면서도, 자기가 쓰면서도 어디 가 있는 줄 모르는 게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제삼자가, 만약에 이런 공부 한 사람이 볼 때는 그거까지도 볼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쥐구멍까지 볼 수 있고 쥐구멍에까지 에너지를 보급할 수가 있는 것은 인간의 참마음입니다. 저 태양이 아무리 저렇게 따뜻하게 비춰 주고 모든 일체 만물을 다 성장케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저 쥐구멍에는 햇빛을 못 들여보내.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쥐구멍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너무나 광대하고 무변하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알아서 앞으로 해 나간다면…. 그것을 날더러 어떤 사람은 천부당만부당한 소리라고 할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또는 자녀들을 키워 가면서, 그 자녀들이 앞으로 점점 성장해 가면서 아마 내 이 말을 증명해 줄 겁니다. 사람사람이 누구나가 지금 이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오백 년 후에도 또 똑같이 이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앉아 있을 거라는 그 신념을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불법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명이 돌 하나라도, 풀 한 포기라도 있다면 그것은 불씨가 있는 것입니다. 왜 없어집니까? 불법이 쇠퇴해진다고 아주 망가진다, 없어진다 이러는데 우리 생명 하나만 있어도 불씨는 있는 것입니다. 생명 아닌 게 어디 하나라도 있나요? (녹음 안됨) 내 지금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듣는다면 바로 거기에서 생각나는 게 있을 테니까 질문하세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같이 앉아 있으면서 오손도손 서로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은, 내가 높으면 얼마나 높고 알면 얼마나 더 알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모르면 얼마나 더 모르고 얕으면 얼마나 더 얕겠습니까?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공생 공용을 하고 지금 공체로 돌아가는 입장에서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대로 스승이 될 수가 있고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대로 스승이 될 수가 있고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을 부리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세요. 아주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은 꼭 밑에서 일을 합니다. 허허, 가만히 생각 좀 해 보세요. 모르니까, 못났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이것이 활달하고 또 똑똑하고 잘 알고, 아주 학식으로써 풍부한 사람은 풍부한 사람대로 똑똑하고 풍부하기 때문에, 일을 안 하면 안 되겠기에 실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더 못한 사람들이 위에 앉고 아주 철두철명한 사람들은 밑에서 실무자가 돼 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가만히 보면.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사람을 부리게 돼 있고 알면 아는 대로 또 쓰게 돼 있거든요. 하게 돼 있고, 밑에서.

그런데 여러분이 딸을 기르고 아들을 기르다가도 어떤 때는 '야, 우리 딸은 저렇게 배운 게 없으니 어디 가서 무얼 해 먹고 사나. 남의 집에 가서 뭐를 어떻게 하고 저거 지탄이나 받지 않을지 모르겠다. 또 우리 아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예가 없이 저렇게 살다가, 부모가 번 거 가지고 공부하고 저렇게 살다가 저거 어떻게 살까?' 이러지마는 환경에 닥치면 다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날더러 "그렇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인간으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는데 나는 "닥치면 어쩔 수가 없더라." 이 말 한마디밖엔 못 합니다. 닥치면 어떡하느냐 이거야. 영화에서 말입니다, 노예를 부리는 사람이 노예를 말입니다, 그냥 막 두들겨 패서 피가 철철철철 나도 튀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그냥 맞아 가면서 일을 해야 하는 그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환경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매달고 치면 뭐, 맞았지 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환경에 들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데 닥치면 여러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환경이라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할 수 없는 게 없다 있다 할 수 없어요. 두 가지를 다 놓고 볼 때 할 수 있다도 아니요, 할 수 없다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걸 떠나라 이겁니다. 떠나서 환경에 닥치는 대로 우리가 조절하고 또 자기의 분수에 맞게 생활을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분수에 맞게 하되 분수에 맞게 하는 그 자체가, 누가 하는가 이겁니다. 이날까지 누가 해 왔으며 지금도 누가 하고 있는가를 보시라 이겁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6년 4월 22일 일반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New 어싱 접지 슈즈



어싱슈즈 블랙그레이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25~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특판가 : 65,000원(배송비 포함)
어싱전용 양말 증정 (재고 여부에 따라 무압박 양말 증정)

Hit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배송비 포함)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